황의조, ‘당분간’ 국가대표팀 제외

축구협회 “불법 촬영 관련 수사 결과 나올때까지”

‘불기소 처분’ 못받으면 내년 1월 아시안컵 불발

이윤남(가운데)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협회 위원장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열린 불법 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축구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노리치시티)가 ‘불법 촬영 혐의’를 벗을 때까지 태극마크를 달지 못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8일 오후 이윤남 윤리위원장, 마이클 뮐러 전력강화위원장, 정해성 대회위원장, 최영일 부회장 등으로 논의 기구를 구성해 회의를 열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팀에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윤남 위원장은 “아직 범죄 사실 여부에 대한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협회가 예단하고 결론 내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 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선수가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정상적인 국가대표 활동이 어렵다는 점, 국가대표팀을 바라보는 축구 팬들의 기대 수준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황의조를 국가대표로 선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이날 논의에 앞서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에게 선수와 관련된 제반 상황을 설명했으며, 관련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했다.

이에 대해 클린스만 감독은 “현재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며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로써 황의조가 사법당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지 못하면 내년 1월12일 카타르에서 개막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출전은 무산된다.

클린스만 감독이 지휘하는 대표팀은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에 도전한다.

만약 기소돼 재판까지 가면 태극마크를 평생 달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2015년 9월3일 라오스와의 2018 러시아 월드컵 2차 예선(8-0 승)에서 A매치 데뷔한 황의조는 A매치 62경기에서 19골을 기록 중이다.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 2022 카타르 월드컵에 나선 바 있다.

황의조는 전 연인과의 성관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6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여성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관련 영상을 게재해 불법 촬영물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여성은 황의조가 여러 여성과 관계를 맺고, 불법 촬영을 통해 피해를 준다고 폭로했다.

이에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이후 유포 협박을 받았다며 이 여성을 고소했다. 최근 경찰이 해당 여성을 구속했는데, 황의조의 형수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황의조는 이달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2연전 기간인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후 피해자가 ‘합의된 영상’이라는 황의조 측 주장을 정면 반박해 파장이 커졌다.

진실 공방이 오가는 과정에서 황의조 측이 피해자의 신상 일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으로 확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황의조가 지난 21일 중국에서 열린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2차전(3-0 승)에 교체로 출전하자 클린스만 감독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팬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황의조 논란은 축구계뿐 아니라 시민단체, 정치권까지 번져 그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진 상태였다.

월드컵 2차 예선을 마친 뒤 중국 현지에서 곧장 영국으로 돌아간 황의조는 지난 26일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리그)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시즌 2호 골을 넣었다.

황의조는 득점 후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세리머니’를 펼치며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대응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잡음이 사그라지지 않자 축구협회는 논의 끝에 명확한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황의조를 국가대표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뉴시스

전국 탁구 동호인 ‘축제 한마당’

‘제21회 정읍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성료

전국 470여명 참여… 단체 · 개인단식 나눠 진행

지난 주말에 열린 ‘제21회 정읍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

‘제21회 정읍시장배 전국 오픈 탁구대회’가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진행됐다.

이번 대회는 지역 내 동호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47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는 단체전 6개부 개인단식 7개부로 나눠 진행됐다.

경기결과 개인 단식에선 여자 1~4부 이미숙(익산하나로), 여자 5~6부 김명희(다원패밀리), 여자 희망부 정유진(정읍국제), 남자 6~7부 김재현(익사한성), 남자희망부 최석준(익산한성)이 우승을 차지했다.

복식에서는 혼성 선수~3부 김선호(전주탁구), 혼성 4~5부 이봉세(송천탁구) 선수가 각각 부문별 우승을 차지했다. 단체전에서는 T.O.P탁구클럽 외 5팀이 부분별 우승팀으로 승리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대회에 참가한 한 선수는 “좋은 성적을 거두진 못했지만 전국의 탁구 동호인을 만나 실력을 겨룰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다”며 “다음 대회에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했다.

이학수 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오랜만에 대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 대회에 참여해 뿌듯하다”며 “생활체육의 대명사인 탁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태권도 교육훈련 거점 역할 수행

세계태권도연맹 국제심판 교육, 내달 2~10일 태권도원서

태권도원에서 열린 2022 태권도 그랑프리 챌린지 경기 당시 심판 모습.
〈사진=태권도진흥재단 제공〉

세계태권도연맹(이하 WT) 국제심판 세미나 및 보수교육이 오는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WT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WT(총재 조정원)가 주최하고 WT ·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종갑)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교육에는 품새 223명과 겨루기 177명 등 30개국 400명의 국제심판이 참가한다.

특히, 2024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교육은 국제 심판 자격 취득, 경력 인정을 통한 국제심판 승급 등을 위해 꼭 이수해야 하는 과정으로 교육 열기가 뜨거울 것으로 예상된다.

2일 T1경기장에서의 품새 기술교육을 시작으로 4일부터는 품새 국제심판 세미나 및 보수교육, 7일부터는 겨루기 국제심판 세미나 및 보수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구성은 품새 · 겨루기 채점을 비롯해 경기규칙과 채점기준, 수신호 등 국제심판으로서 숙지해야 하는 내용으로 분야별 교육 최종일에는 이론 및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된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은 “세계 유일의 WT 중앙훈련센터인 태권도원이 태권도 교육과 훈련의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라며 “올림픽 등 주요 국제 대회에서 활약하게 될 심판들이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WT와 함께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동호인들, 남원에 모인다

춘향배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 30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서

장애인 파크골프 〈사진=남원시청 제공〉

남원시장애인체육회(회장 최경식)는 오는 30일, 제1회 남원 춘향배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파크골프장에서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장애인 파크골프 동호인 200여명이 참석, 오전에는 개인전, 오후에는 단체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파크골프는 나무로 된 채를 이용해 지름 6㎝의 공을 홀에 넣는 공원에서 치는 골프로 비용이 저렴하고 공이 가벼워 큰 힘이 없어도 가능해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에게 좋은 운동이며, 춘향배 장애인 파크골프 대회는 남원시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전국단위 장애인체육대회로 푸짐한 경품이 준비되는 등 개최 전부터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장애인들의 체육복지 실현을 위해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